

# 교황, 나가사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호소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1월 24일, 나가사키 폭심지공원에서 평화가 두려움 위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며 핵무기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분량상 언론에 보도된 교황의 메시지를 요약하여 실는다. 내용 출처는 연합뉴스, 경향신문, 바티칸 뉴스 등이다. - 편집자 주

## 교황, 日 피폭지서 “핵무기 없는 세상 가능…폐기 참여해야”

- “핵무기 폐기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과 국가, 기관의 참가가 필요하다.”
-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는 핵무기 사용이 초래할 파멸적인 파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을 향한 희망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
- “무기 제조와 개량은 터무니없는 테러 행위”, “(핵무기금지조약 체결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해 가야 한다.”
- “천주교가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 추진)을 포함해 핵무기와 군비의 감축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 “핵무기 없는 세상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확신 안에서, 저는 이러한 무기들이 이 시대의 국내외적 안보가 당면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치 지도자들이 잊지 않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인도적이고 환경적인 관점에서, 핵무기의 사용이 초래할 파국적 영향을 깊이 숙고해야 한다. 또 핵 관련 정책으로 조성된 공포, 불신, 적대감이라는 풍토가 강화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 “핵 보유만으로도 비도덕” 교황청 강령, 37년 만에 바꾼다

-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하는 행위 자체로 비도덕적”, “이 의견은 가톨릭교회 교리 문답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만 한다.”
- “나는 핵무기 사용이 부도덕하다고 (과거에도) 말했다. 한 정부의 광기가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만약 무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 모두가 호전적 행동을 피하는 데 찬성했다고 해도 거부권을 가진 1개 국가가 ‘노’(No)라고 하면 모든 것이 멈춘다.”